

## 20세 대니 서 환경운동 재미청년 ‘아름다운 50인’ 뽑혀



‘아름다운 청년’ 대니 서(20) 12세 생일을 맞은 날, ‘풀뿌리’ 환경운동을 시작한 약관의 재미 한국인 청년이 미국의 유명 주간연예지 ‘피플’(5월11일자)이 선정한 ‘98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명’에 뽑혔다.

운동에 헌신하게 된 계기는 9년전인 ‘89년 4월, 생일 전날 밤 우연히 본 방송 토크쇼였다. 동물의 권리를 역설하는 한 여성 토론자의 깨끗한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아픔의 차이는 같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날의 다짐은 이후에도 한결 같았다.

다음날 ‘꼬마’ 대니는 10달러를 가지고 또래 친구들에게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세기안에 지구를 살리자는 뜻에서 단체 이름을 ‘지구 2000’으로 지었다.

‘95년 고교를 졸업한 뒤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미국 곳곳의 고교와 대학을 돌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구...’의 회원 수를 2만5천여명으로까지 늘렸다.

뉴스위크, 월 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매체는 그의 정열적인 활동에 관해 5백건 이상의 기사를 실었다. 서씨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지로부터 “노아보다 동물을 더 많이 살려낸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고, ‘인도주의를 위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연구소’로부터 훈

장을 받기도 했다.

피플지 선정 '50명'에는 서씨 외에도 정치인으로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가수 올리비아 뉴턴 존, 영화 '타이타닉'의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글로리아 스투어트,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 헬 렌헨트 등이 포함됐다.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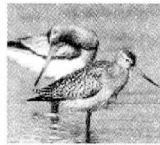
## 도요새 집단 도래지 발견

영종도 신공항 건설지 뒷편 이주민 거주용 갯벌 매립예정지에 국제보호철새인 도요새의 집단 도래지가 발견됐다.

지난 4월부터 이 지역에서 도요새 및 물떼새 이동조사 활동을 벌여온 인천환경운동연합(대표 홍성훈)과 습지연대회 등 환경단체들은 4월26일 "신공항 진입로 남쪽 방조제 안쪽 갯벌 59만여평에 국제보호철새인 민물도요 1만1,500마리를 비롯해 큰뒷부리도요 1990여마리, 알락꼬리마도요 570마리 등 도요새 2만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알락꼬리마도요 한 마리와 큰뒷부리도요 두 마리는 발목에 빨란 플라스틱 띠를 두르고 있어, 이 지역이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도요새들의 중요한 이동통로임이 입증됐다고 환경단체들을 밝혔다.

지난 4월25일 이 곳을 찾은 영국인 조류학자 닐 모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13만마리에 불과한 민물도요의 경우 '람사협약'의 랍사사이트 기정기준(전세계 개체수의 1% 이상)보다 10배나 많은 수가 찾아왔다."면서 "국제보호철새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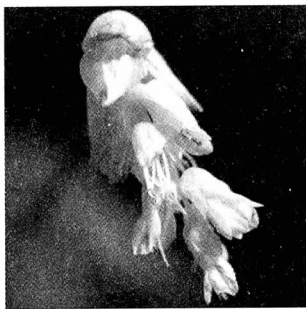


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4월말께 환경부에 이곳의 매립계획을 중지하고 생태학습장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 내년 5월 코스타리카 램사총회에 램사사이트 지정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 특산식물 ‘히어리’

### 국내 최대군락지 새로 발견



환경부 보호식물 52종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인 히어리(학명 *Corylopsis coreana*)의 국내 최대 군락지가 새로 발견됐다.

전북대 생물과학부 선병운(45) 교수는 전북 남원시 산동면 천황산(해발 909m) 동남쪽 계곡 일대에서 국내에서 개체수와 면적이 가장 큰 히어리 군락을 발견했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선 교수는 “이 일대는 국내 어느 곳보다 군락의 규모가 큰 데다 나무의 크기가 2~3m가 넘는 성숙한 개체들이어서 특산식물 군락지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며 “중요 식물군

락지로 지정해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이 추진중인 고압 송전선로가 이곳 군락지 한 가운데를 꿰뚫고 지나갈 예정이어서 군락지 보호 차원에서 한전의 송전선로 계획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히어리는 이른 봄 작고 노란 꽃송이를 피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산식물로, 지리산 일부 지역과 전남 팔령산 백운산 조계산, 경기도 백운산 등지에서만 소규모 군락지가 확인됐다.

(한겨레 신문)

## 기후변화 협약 효을 대처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효을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개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지난 4월2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선진국의 의무부담 요구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오는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마련하려면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과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기구를 만들게 됐다.

대책기구에는 재경 외교통상 건교 산자 환경 농림 과학기술부와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 남북한 두만강 환경조사

남북한은 이르면 오는 8, 9월께부터 두만강 유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벌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5개국이 '두만강 유역 환경보전 전략계획 및 국경간 진단분석' 사업을 위해 유엔지구환경기금(GEF)에 요청한 520만달러의 환경개발 자금 지출이 지난 3월말에 열린 제11차 이사회에서 잠정 승인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께 이 사업의 후속단계를 논의하는 환경기금 이사회가 진출을 최종 승인하고 유엔개발계획이 구체적 사업안을 확정짓는대로 오는 8,9월께부터 본격적인 환경보전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5개국이 합의한 이 사업은 2년 동안 모두 1,066만6,000달러를 투자해 두만강 유역 개발로 발생한 △두만강 하류 수질개선방안 △나진·선봉일대 대기오염 절감방안 △동해오염 방지책 △백두산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전 활동을 벌인다.

전체 사업비 1,066만6,000달러는 환경기금의 환경개발 자금 520만 달러와 유엔개발계획의 출자금 320만달러 외에 한국 25만달러를 비롯한 5개국의 현물 부담금 200만달러 등으로 충당된다.

(한겨레 신문)

## 매년 환경장관회의... 황사대책등 논의

한국 일본 중국은 앞으로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협력활동 및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연례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지난 4월3일 최재욱 환경장관이 밝혔다.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 6차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최장관은 야마모토 고이치 일본 환경차관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3국간 연례 환경장관회의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중국도 연례회의의 개최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장관은 황사나 산성비 등 중국의 공업화로 인한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에 대한 한일 양국이 상호 협조, 공동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지구환경금융( GEF)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사막화방지 프로젝트 등이 강구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측에 산업폐기물의 대북 수출과 관련, 북한이 산업폐기물을 환경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형편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최장관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조속히 서명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 한국이 외환위기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현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기는 방법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 열목어 지속 보전방안 마련돼야

강원도 홍천과 인제 등 깊은 산골 1급수 하천에만 사는 열목어가 일부 지역에선 환경훼손으로 줄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월8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역내에서는 홍천군과 인제군, 정선군, 고한읍 정암사내, 양구군, 영월군 일부 지역에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계곡과 하천이 오염되면서 열목어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보호대책이 부족, 크게 위협받고 있다.

연어과에 속하는 열목어는 물이 맑고 한여름에도 수온이 섭씨 20도 이하를 유지하는 하천에 서식해 울창한 산림 등 주변 자연환경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홍천군에는 열목어가 많이 서식하기로 유명해 내면 명개리 명개천이 강원도 지정기념물(문화재) 제67호로 지정돼 있으며 주변의 계방천 등이 지난 '97년까지 각종물고기를 포획할 수 없는 보호수면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호수면 지정이 해제돼 명개천을 제외한 주변 하천에서의 남획이 우려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내면분소 김용길

씨(38)는 “산란기인 4월이 되면 부근하천에서 25~30cm 길이의 2~3년생 열목어를 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보호수면 해제에 따라 남획이 예상돼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제군지역도 열목어 서식지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내린 천 하류지역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나 최근에는 인근 양양 양수댐 공사로 인한 도로개설 등으로 하천에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열목어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열목어는 지난 2월18일 이전까지 환경부에서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상의 특정 야생 동·식물에 포함돼 보호를 받았으나 최근 개정된 법 시행령에는 '멸종 위기에 있거나 보호해야 할 야생 동·식물'에서 빠져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수산자원보호령에도 열목어는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열목어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 지역 그대로의 주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과 삼척시내 수면개발사업소, 한국생태계보존연구소 등에서 이에 대한 양식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1급수의 지표종이기도 한 열목어를 어느 곳에서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검토과정을 거쳐 보호어종으로 지정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